

# 뒷맛 개운치 않은 책 제목들

## 차범석

극작가 · 예술원 회원

작품을 쓰다 보면 제목은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지 않게 신경을 쓰게 된다. 제목도 틀림없는 창작에 속하기 때문이다. 그래서 그 제목 여하에 따라 그 내용까지도 평가받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. 상징성 · 은유성 · 서정성 · 시사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직설적이거나 자극적인 제목으로 작품 내용을 미처 다 읽기 전에 그 작품을 절반 이상 말해버리는 데 이르러서는 제목 자체가 곧 작품이라는 혼동까지 일으키게 한다.

나는 지금까지의 체험에서 제목부터 정하고 나서 집필을 하는 버릇이 있다. 어떤 사람은 작품을 다 쓰고 난 다음 그 내용에 걸맞고 멋진 제목이 없을까 하고 끙끙거린다는데, 나는 그 반대이다. 어떤 소재를 얻었거나 창작의 충동을 받는 순간 어떤 제목이 떠오르곤 했었다. 그것은 영감(靈感)이라고 해도 좋고 즉흥적인 발상이라고 해도 무방하나 아무튼 그 작품 속에 담고 싶은 이야기며 주제며 메시지가 아주 작으면서도 응고된 결정체로 뇌리를 스쳐갔을 때 나는 거의 반사적이면서도 섬광처럼 반짝이는 광채를 보듯 제목을 정하곤 했었다. 그래서인지 나의 희곡의 제목은 비교적 짧은 편이다. 남들이 나의 대표작으로 꼽아주는 <산불>을 비롯하여 <귀향> <밀주> <성난 기계> <안개 소리> 같은 단막극에서부터 <꿈하늘> <환상여행> <청기와집> <학살의 숲> <갈매기떼> 등의 장막극에 이르기까지 짧은 제목이 긴 제목보다 많은 편이다. 그러나 그것은 결코 처음부터 의도적이거나 계산된 발상은 아니다.

그런데 요즘 새로 나온 책 광고를 보면 대체적으로 제목이 길다. 제목의 장단이 작품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길도 없으며 아무튼 짧은 구절 같이 읊조리는 제목이 눈에 띈다. 그것도 남성보다 여성작자들이 써낸 시집이나 수필집의 제목의 길이는 월등하게 길어 보인다. 게다가 그 신간을 놓고 추천이나 권장의 글이 한몫 끼여들어 금방 베스트셀러의 랭킹에 뛰어 들 것 같은 맹위를 휘두르는 책 광고에서, 새삼 시대의 변천이랄까 현실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당혹과 경이, 진실과 가식, 충격과 선정, 그리고 사이버성 상술까지도 느껴져 정신 위생을 해칠 때가 있다.

나의 풍자극 <왕교수의 직업>이라는 작품에는 주인공이 현실사회를 꼬집는 대사 가운데 사회명사가 남의 책을 필독서로 평가하여 권장하는 걸 비꼬는 대목이 있다. 1978년의 작품이다. 자기가 읽어서 감동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만천하의 독서층에다 일방적으로 권장하는 일은 한 마디로 넌센스요, 기만이라는 뜻이었다.

그런데 요즘 책광고에 등장하는 사회각층의 유명인사의 추천사는 지나치게 상업적이고 속이 들여다보일 때가 있어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. 그것도 그 작품의 제목이나 내용하고는 거리가 먼 소리를 늘어놓는 글을 대할 때 새삼 창작도 상품이라는 통속적인 관념에 또다른 불쾌감을 맛보게 된다.

작품의 제목은 분명한 창작이다. 그것은 그 내용이 독창적이고 인물이 개성적이고 그래서 메시지는 싱그럽고 예리한 송곳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들었던 말 같고, 추천사만 읽어도 그 내용이 뻔한 남자와 여자의 얘기를 썼다는 제목에서 마치 요즘 인기가 있다는 TV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다. 40년전 방송했던 같은 제목의 라디오 연속극이 지금도 TV극으로 희생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제목만이라도 새로 태어났으면 한다. ♦

- 표지 인터뷰 2 **역사와의 대화에서 얻는 생명력**  
《다시 찾는 우리 역사》 펴낸 한영우 교수
- 출판인 칼럼 3 **‘과학기술 시대’ 라고 하는데** - 이정일
- 특집/인물읽기 시대, 예감 4 **위대한 인물의 삶과 사상을 읽는다**  
6 **우리 전기물, 아직도 갈길 멀다**  
7 **‘인물의 시대’ 예감하는 전기출판**  
8 **각계 9인이 들려주는 “내가 감명깊게 읽은 전기”**  
강영계/김석철/김영민/김용정/성석제/  
이신행/임영균/장숙경/정성일
- 책갈피 산책 10 **윤홍길 《빛가운데로 걸어가면》을 읽고** - 박이엽
- 특별 기획 12 **“‘동도지사’ 희생 위에 오늘을 건설”**  
‘출혈’ 탄생 전후의 출판계(1945~1948) ③
- 출판 포커스 13 **출판은 캐릭터 상품이 아니다** - 이중환
- 리뷰 14 **대학 새내기를 이끄는 교양서들**
- 이 책을 말한다 16 **주강현 지음 《한국의 두레 1·2》** - 천혜숙
- 신간읽기 17 **박은순 지음 《금강산도 연구》**
- 저자 초대 18 **《현대 사회철학과 한국사상》 펴낸 신일철 교수**  
**《카타르시스 라사 신명풀이》 펴낸 조동일 교수**
- 확대서평 19 **프로이트 지음 《문명속의 불만》 외** - 임홍빈
- 출판화제 20 **삶의 한순간 담은 ‘짧은 소설’ 호응**  
**봄내음 가득한 우리의 내림입맛**
- 연재기획 22 **미래사회의 변화물결 감지한 예측서들**  
**책과 떠나는 시간여행 ④**
- 책이 있는 풍경 24 **손끝에서 탄생하는 인간의 삶**  
**이원복 교수의 작업실**
- 서평 26 **김한규 《고대 동아세아 막부체제 연구》** - 임중혁  
**이신행 《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치변동》** - 신광영  
27 **헨리 조지 《진보와 빈곤》** - 김진방  
28 **김병익 《새로운 글쓰기와 문학의 진정성》** - 김주연  
**공병호 《시장경제와 종교》** - 장상환  
29 **발터 엔스 《문학과 종교》** - 류성민
- 이 책 그 사람 30 **《고구려 문화유적》 펴낸 김삼씨**  
**《신문읽기의 혁명》 펴낸 손석춘씨**  
31 **《나는 역사를 이렇게 본다》 펴낸 오종림씨**  
**《해성 관측 가이드》 펴낸 조상호씨**  
32 **새책 속으로 / 36 새로 나온 책**  
48 **책의 문화유산 ⑥**